

會長
法話

「덕분에」를 세어보자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鑽)

고(苦)가 기쁨으로 바뀐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화학적인 대답은 전문가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우리는 다른 동식물의 생명을 영양분으로 받는 등 우리의 몸은 수많은 생명의 덕분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이 옳은 답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그 하나하나의 연(緣)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타(他)를 살리는 하나의 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 그런 점을 잊고 걸핏하면 불평불만과 원망의 말을 입에 담습니다. 또 무상(無常)의 법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은 그것을 고로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을 설하는 것처럼 현상 그 자체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이며 「공(空)」입니다.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한 번 제로로 하고 새로이 눈앞에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苦)는 기쁨과 삶의 보람으로 이어지고, 슬픔은 마음의 성장으로 촉진되어 원망의 마음조차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환도 생겨납니다. 그 근본은 연기(緣起)와 무상, 공(空) 등의 진리 인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진리를 배움에 따라서 행복을 받아들이는 감도(感度)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고정적이 되기 쉬운 시각,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른바 중립적인 입장에 놓고 「덕분에」라는 감사의 씨앗을 많이 찾아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에도(江戸)시대의 가인(歌人)이었던 타치바나 아케미(橘曙覧)는 「즐거움은…」으로 시작되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피지 않았던 꽃봉오리를 볼 때」 「즐거움은 추수 후 뒤주에 쌀이 가득 차 마음이 넉넉할 때」— 이 노래처럼 당연한 일상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저절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저 자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속에서 어리석음이 많았던 자신을 반성하고 「시각을 바꾸면 고마운 일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깨달은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다」 「덕분이다」라는 마음이 솟아오르면 그것이 배려가 되고 상냥하고 따뜻한 말이 되어 남에게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접함으로써 「나와 남은 본래 하나다」라는 자각이 생겨 다른 사람을 자애롭게 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뿌리내린 이타(利他)의 행위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 돌아옵니다. 「생각하면 생각해준다」는 말 그대로 던진 것은 반드시 되 돌아옵니다.

「고맙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감사로 받는 일로 이어진다—자타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우는, 이와 같은 교감은 우리에게 기쁨과 삶의 보람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게 전하는 이타의 실천은 밝은 인생을 창조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어둡고 우울해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밝은 「감사」라는 한줄기 빛을 비춰 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선은 가까운 곳에서 「덕분에」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손자의 성장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덕분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사사로운 기쁨과 행복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佼成』 2012年12月号

본회에 대하여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개조 니와노니코, 협조 나가누마요코에 의해 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려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니코회장과 함께 저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의 포교전도에 힘쓰며,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손잡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SHAN-ZAI 2012年12月号 (Vol. 87)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本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shanzai.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者一フ: 中村悦子 翻訳: 在家仏教韓国立正佼成会 編集スタッフ: 松岡志帆・水濂克年・工藤友紀乃・江藤真弓・鈴木佐祐里・金尾江利子・牧野紗知・野川友里江・中山悦宏

※このニュースレターは、「日本語版」「英語版」「中国語版」「ポルトガル語」他、12か国語ございます。※ご意見・ご感想・ご不明な点などがございましたら、ご連絡先までお寄せください。
 ※二次使用をされる際には、国際伝道本部までご連絡ください。